

오늘의 행복이 귀중할수록 항일혁명선열들의 피어린 자욱자욱을 잊지 말자

백두의 칼바람정신 우리를 승리로 부른다

세월이 흐를수록 시대는 변천하고 혁명의 대도 굽어앉아 바뀌어진다.

하나이 세상 모든것이 다 변한다 해도 백두의 혈통을 손질하지 않으면 이 땅의 계승자들이 부르는 혁명의 영원한 주제가 변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백두의 칼바람에 꽃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라 폭풍쳐 내달리자!》 우리 당의 믿음의 구호, 투쟁의 구호가 청년들이 심어 입히는 곳마다에서 새차개 맥박치게 하여야 하십니다.

얼마전 모란봉기슭을 지나던 우리는 청년이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돌아오는 열차에 마중하러 오려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저도 모르게 말짱을 꼈다. 수많은 청소년학생들로 북적이는 구경에서는 그들이 합창으로 부르는 항일혁명가요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눈보라처럼, 피바다처럼 채 치며 조국해방의 그날을 위해 모진 고군과 시련을 맞받아나가는 항일투사들의 모습을 그려보는가 할때마다 승천한일이 흐르고

우리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 최영성동무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이들이 조국해방 71돐을 맞으며 진행할 평양시소년학생들의 대항쟁공연 《백두산과 청년강국》을 준비하고있는 출연자들에게 부탁하였다.

소년들의 목격과 의에 맞게 항일혁명가요들을 많이 선정할 것도 좋지만 보다 감동하게 되는것은 작품의 세계를 감명깊게 형성하는 출연자들의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모습이었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머리시장을 맡은 동무들은 벌써 며칠밤을 새우다싶이 하고있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의 열의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유익에도 시랑송헌현에 어찌없는 평양전국총학생대회 양일민, 평양제기기술대학 한지향동무들을 만나보았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구절구절을 읊느라 밤도잠을 취하지 못하는 백두산청년학생군대의 거목이신 동무들이 눈앞에 이르러 조국해방전쟁에서 총격하게 싸우다 희생된 항일혁명투사들의 피어린 자욱자욱이 사무

쳐와 눈시울 젖어든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흥분된 마음을 머금었다.

《지금도 해방을 하루 앞두고 전사한 항일혁명투사 김봉석동지의 반신상앞에 설 때면 내 가슴이 아끼고 가슴이 뜨겁게 울려오는데 신조차 찾지 못했다 가슴이 뜨겁게 울려오는데 우리 수령님께서 회고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회고하듯 남긴 것 잊을 수 없어요. 무사들의 고귀한 넋으로 심장을 울려주는 청년학생들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남성3중장과 합창 《어머니 리별》, 여성5중장과 합창 《꽃은 피는 더 많이》에 출연하는 김철주사범대학 주강, 서변의동무들도 노래를 부르며 무대앞 싸움의 길, 혁명의 길에 주저없이 나선 항일의 너대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어오는데 가슴이 뜨겁게 울려오는데 어머니의 애절한 목소리가 가슴을 찌르십니다.》

이들만이 아니었다.

남성4중장과 합창 《사향가》를 준비하는 김철공원종합대학 박희성, 리동민, 김성혁, 박형락 동무들 비롯한 청년학생들, 합창 《변질전가》, 《영웅들은 조선의 운명》에 출연하게 될 수 많은 청소년학생들이 누구를 만나보아도, 공연의 그 어느 곡목도 빼놓지 않고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고 무대를 살피고 무정의 거목과 같은 눈빛을 청춘시절을 보내어나가려는 함양고도 미더운 청년들의 아름다운 지향을 읽을수 있었다.

어제 그렇지 않으려.

가서야 백두산의 노래를 자랑처럼 불어내며 성창에서 10대의 그 시집에 벌써 항일혁명투사들의 노래를 흥겨우게 들려주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전적지탐사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수령님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 행군하면서 혁명전적지탐사시기를 이어나가게 하는 전적지외 사적물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감동하여 땀을 흘립니다.》

얼마전 우리는 삼지연군에서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탐사에 참가한 국가학위학위수여위원회 위원들을 만났다. 거의 모두가 조국, 박사들이 그들의 감동은 매우 컸다.

항일의 옛 전적지를 찾아보고 싶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오늘의 행복이 소중할수록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혁명선열들의 고귀한 당부를 조선의 과학자들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본기자 장정철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실로 한쌍을 가장 값있게 빛내인 영웅전사들이었다.》

얼마전 위대함에 우리는 함경북도 온성군에 있는 최순국동지의 동상을 찾은적이 있었다.

혁명의 용사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고 주체의 선군혁명투사에 불멸의 공적을 남긴 혁명전사 최순국 동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창기부터 혁명에 참가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용감하게 싸웠고 해방후에도,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잘 싸웠고 그 불꽃이 내세워주시며 그의 고향에 동상을 세우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투사의 동상을 바라보노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방곳에서 세워주시는 항일혁명투사들의 동상들이 우리 눈앞에 어찌어찌, 김철, 안길, 김경서, 조정철, 류정수...

하나 그들중에는 고향이 아닌 곳에 동상이 반신상이 세워져 있는 투사들도 있다.

항일혁명투사 장건동지, 그의 동상은 함양시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항일혁명투사 장건동지에 대해 이렇게 감동적이 회고하시었다.

《강건이처럼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혁명을 해도 열렬하게 합니다. 항도에 가깝한 사람은 조국애도 강하며 조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울수 있었던것은 그들이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을 지니고 있었기때문입니다.》

이해의 여흥은 류필리 뜨겁다. 돌아다니는 8월의 북양을 맞으며 대성산혁명투사들의 제단을 하나, 둘 오르노라니 문득 우리 머리속에 어머니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

《1차 북반원정당시의 료야령은 장실로 뒤덮인 설령이었으나 2차 북반원정을 떠날때의 료야령은 일만조목에 여뿔뿔이 찢어진 천막이 덮여 있었다. 1934년 10월에는 설악산을 해치며 이령을 넘었다면 1935년 6월에는 삼을 지지는것 같은 외양과 모기와의 성화를 받으며 이령을 넘어야만 했다. 확연과 폭설도 겹치며 어려운 고초였지만 폭양과 염도 만만치 않은 정이었다.》

은은하게 들려오는 《사향가》의 선율속에 이 구절을 되새겨보노라니 마치 하나하나의 제단을 밟아오르는 우리의 발걸음이 쉼 없이 한 무대위를 헤쳐며 료야령을 넘어 항일의 투사들의 한지한지의 발걸음을

우리는 진실로 당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할 용모하며 빛내어나가야 한다는 자각을 항일전적지에서 절실히 새긴 그들이었다.

항일의 선열들이 새겨주는 행복과 신념에 대한 진리를 배우는 새기고 삼지연군에서 혁명사적지를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여 불타는 열정을 고루해준 국가학위학위수여위원회 서기장 교수 박사 장충근, 책임연구원 리광복, 장충남, 김승철, 김원준명칭 음악종합대학 부총장 교수 박사 림해영,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원 박사 부교수 박희순, 인민경제대학 지도교원 부교수 김은중동무들...

답사수행의 밤이면 천공보다 귀중한 백두산지구신비를 만년대계의 천공으로 설계해 할 뜨거운 마음을 안고 실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연구해 나가며 장지대로 들지 못한 산맥과 한천 원장 부교수 리호철동무, 사회과학원 최장준원동무는 답사기념수첩에 남긴 글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오늘의 행복이 소중할수록 선열들이 피로 찾은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죽어서도 변치 않을 혁명적신념과 향심을 버리지

수필 투사들의 고향

김세옥동지의 반신상은 대동단군에 있는 대동단혁명전적지에 세워져있다. 그는 1939년 5월 23일 대동단전투에 인민들을 위협하는데 구출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투사의 위훈을 후손들이 두근두근 잊지 않도록 눈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투사의 수령님사승정신에 깃들여있고 뜨거운 피가 스며있는 대동단에 그의 반신상을 세워 투사의 삶이 길이 빛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투사들이 꿈에도 가고싶어했고 죽어도 안고고싶어했던 고향, 그 고향에 대한 생각이 이어가노라니 우리의 귀에는 투사들이 들려부르던 《사향가》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듯싶었다.

... 대동장을 아름다운 만경대 의 불꽃에 잊을수 없네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 고향아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조국에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울수 있었던것은 그들이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을 지니고 있었기때문입니다.》

이해의 여흥은 류필리 뜨겁다. 돌아다니는 8월의 북양을 맞으며 대성산혁명투사들의 제단을 하나, 둘 오르노라니 문득 우리 머리속에 어머니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

《1차 북반원정당시의 료야령은 장실로 뒤덮인 설령이었으나 2차 북반원정을 떠날때의 료야령은 일만조목에 여뿔뿔이 찢어진 천막이 덮여 있었다. 1934년 10월에는 설악산을 해치며 이령을 넘었다면 1935년 6월에는 삼을 지지는것 같은 외양과 모기와의 성화를 받으며 이령을 넘어야만 했다. 확연과 폭설도 겹치며 어려운 고초였지만 폭양과 염도 만만치 않은 정이었다.》

은은하게 들려오는 《사향가》의 선율속에 이 구절을 되새겨보노라니 마치 하나하나의 제단을 밟아오르는 우리의 발걸음이 쉼 없이 한 무대위를 헤쳐며 료야령을 넘어 항일의 투사들의 한지한지의 발걸음을

우리는 진실로 당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할 용모하며 빛내어나가야 한다는 자각을 항일전적지에서 절실히 새긴 그들이었다.

항일의 선열들이 새겨주는 행복과 신념에 대한 진리를 배우는 새기고 삼지연군에서 혁명사적지를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여 불타는 열정을 고루해준 국가학위학위수여위원회 서기장 교수 박사 장충근, 책임연구원 리광복, 장충남, 김승철, 김원준명칭 음악종합대학 부총장 교수 박사 림해영,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원 박사 부교수 박희순, 인민경제대학 지도교원 부교수 김은중동무들...

답사수행의 밤이면 천공보다 귀중한 백두산지구신비를 만년대계의 천공으로 설계해 할 뜨거운 마음을 안고 실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연구해 나가며 장지대로 들지 못한 산맥과 한천 원장 부교수 리호철동무, 사회과학원 최장준원동무는 답사기념수첩에 남긴 글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오늘의 행복이 소중할수록 선열들이 피로 찾은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죽어서도 변치 않을 혁명적신념과 향심을 버리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민수대연에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국해방 71돐에 즈음하여 13일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지구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국해방의 역사적위

우리 나라 특별전 권대사

장은근 캄보주재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12일 온센 캄보주재 정부 수상들의 제방문을 하였다.

서상에서 대사는 경례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 수상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수상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청진항에서 진행

조국해방 71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이 13일 청진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청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쳐올리며 대하여 인사를 드려왔다.

모임장소정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도교국적선박 《위행》호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조국해방 71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이 10대의 어린시절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안고 20살생 때두팡이의 살한 공중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조국해방, 민족해방의 위

천만년 길이 칭송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 기자와 회견

조국해방 71돐에 즈음하여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가 1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회견에서 대표들은 항일의 전적지였을지라도 백두산의 장성의 명장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금치 못해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8월 15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러 나라와 겨레의 운명이 구원되고 민족번영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혁신의 날이다.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만방에 펼쳐지고있는 오늘날은 겨레는 민족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동지님의 조국해방업적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가를 심장으로 뜨겁게 절감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국권을 강탈당하고 삼천리강토를 통째로 빼앗

민족해방투쟁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

여러 나라 인사들 열렬히 칭송

세계 진보적인인들은 축전과 축하연회를 통하여 선군의 기적들이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절세의 애국자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 열》인민총일공화국중앙 중앙리사들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지니시고 강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조직적으로 하시기에 조국해방의 새물안인 것이시었다.

영웅적인 항일혁명전쟁은 1945년 8월 15일 빛나는 승리로 끝났으며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되었다.

조선의 해방은 민족해방과 민족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특별한 자주적신념과 독립의지를 지니시고 혁명을 위하여,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모는것을 다 마치고 혁명투쟁은 조선인민의 운명의 구세주이시었다고 하시며 그는 조선에 밝은 자유와 독립의 시대를 열어준 해방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의 영웅적투쟁과 빛나는 시기 조국을 불멸의 존엄과 결부시켜 경이로 부르고있다.

김일성동지는 조선해방의 운인이라고 하면서 매니저로 최후의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

영국레이버당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일행 도착

글린 로드 영국레이버당 대외 관계위원회 위원과 일행 13 했다.

외무성대표단 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하고 귀국

신홍필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대표단이 일부 아프리카나라들을 방문하고 13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꾼들이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희망기회를 통하여 항일혁명선열들의 백발백중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우고있다. - 평양시로포동장제공장에서 - 본기자 찍음

